



2007년 경제전망

본고는 최근 (9~11월)에 발표된 주요 경제 연구기관의 07년 국내외 경제 전망을 종합 요약한 것이다.

■ 자료

- 삼성경제연구원 : 07년 세계경제전망(06.10.11), 07년 국내경제전망(06.11.23)
- 현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하락 지속될 것인가?(06.10.27)
- LG 경제연구원 : 07년 국내외 경제전망(06.11.16)
- 국회예산처 : NABO 07년 경제전망(06.10.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07년 원화 환율 전망(06.11.3)
- 하남금융연구소 : 06년 4/4분기 및 07년 하나경제금융전망(06.10.27)
- 산업은행 : 06년 기업금융시장 분석과 07년 전망(06.11.24)
- 전경련 : 07년 경제 전망 세미나 자료(06.11.24)

1 세계 경제

지난 3년간 고성장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2006년 하반기를 고비로 점차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유로지역 및 중국 등 주요국과 상대적으로 성장율이 훨씬 높은 개도국의 성장세가 미국의 둔화폭을 어느 정도 상쇄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급랭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 국내외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07년에 미국과 세계경제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연착륙의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와 대외 불균형 심화라는 악재 속에서 당분간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플레이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여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는 없는 상황이며, 실적 호조 기업의 투자 확대와 주택 경기 안정세 회복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동안 지점을 거친 후 07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다소 커보인다.

일본은 소비회복세 약화와 수출둔화로 2006년보다 다소 낮은 2%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06년 하반기 이후 일본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조정으로 인한 수출환경의 악화로 기업의 수익성과 설비투자가 소폭 둔화될 것이며, 수출의 경우도 중국의 경기조정, 고유가 지속,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엔화의 상승 및 금리인상의 가능성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설비투자와 수출이 주도하고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IMF		Global insight		주요 국제은행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연도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세계	3.7	3.3	4.9	4.5	5.1	4.9	3.9	3.2	3.5~5.0	3.1~4.4
미국	3.3	3.0	3.3	2.4	3.4	2.6	3.3	2.4	3.2~3.3	1.9~2.9
유로지역	2.1	1.9	2.3	2.3	2.4	2.0	2.5	1.7	2.6~2.7	1.6~2.4
일본	2.4	2.1	2.7	1.9	2.7	2.1	2.5	2.1	2.7~3.1	2.1~3.0
중국	10.2	9.4	10.2	9.8	10.0	10.0	10.5	9.2	10.0~10.6	8.5~9.8

있는 일본의 경기의 회복속도는 완만해 질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지만 명목성장률은 높아지면서 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긍정적이며, 디지털가전과 유희 등의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의 적극적인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 의존하던 성장 패턴에서 고용증가를 동반한 소비 의존형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유로경제는 06년 보다 다소 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의 둔화세가 완만하며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를 인상으로 인한 향후 소비 위축, 미국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성장률을 둔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구조조정은 투자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외국기업들의 유럽 내 공장 증설도 활발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 개선과 독일과 프랑스의 견실한 내수경기 등 민간소비를 지지해주는 요인들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07년 중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경제안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성장률이 다소 둔화 되겠지만 내수 및 수출 증가세, 소비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06년과 비슷한 9~10% 수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투자급증으로 인한 경기과열 억제 를 위한 06년 하반기 긴축조치의 강도가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03년 이래 지속된 각종 투자억제 조치의 효과가 가시화 되어 경기가 진정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흑자 확

대로 인한 미국과의 통상미찰 심화 및 위안화 절상 압력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과열 보다 금압을 우려하는 중국정부의 특성상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상등을 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 경제

07년 국내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경기 둔화와 06년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세 정체 및 수출증가세 둔화, 물가상승률 상승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년동기비 4% 초반의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불안은 07년 한국경제의 행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	06년	07년
OECD	4.4	5.2
삼성 경제연구원	4.8	4.3
LG 경제연구원	-	4.0
산업은행	-	4% 초반
하나 금융연구소	-	4.4
국회 예산처	4.8	4.3
전경련	4.7	4.3

민간소비는 06년 하반기 이후 가계의 구매력과 소비심리의 약화가 지속되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07년 상반기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 약화는 민간 부문에 실질 소득 감소를 유발할 것이며, 원화강세와 고유가 요인 역시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소비 회복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분기 이후 대선 등에 주목하며 완만한 소비의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KOTMA Journal

하반기 중에는 IT부분의 공급과잉 해소가 진행되어 수출이 상반기 보다 호조를 띄면서 민간소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투자 부문을 보면, 06년 하반기 이후 내수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구조적인 설비투자의 축소압력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대선을 전후한 규제완화 기대 및 설비 투자조정 압력의 증가 등으로 하반기 들어 부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이 다소 확대되지만 민간부문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건설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의 건설부문 재확장으로 완만한 상승흐름은 가능할 전망이다.

그간의 내수 회복으로 근원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강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과 집세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다. 실업률은 06년과 동일한 수준 또는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07년 경제성장률이 전년수준을 하회하면서 연간 일자리 창출 증가 폭을 제한하고 민간소비 둔화로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되지 않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IT 진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증가세 둔화가 맞물리면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거래에 있어서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되면서 수출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2002년(8.0%) 이래 5년 만에 성장률이 한 지릿수 - 삼성 경제연구원은 8.3%, 국회 예산처는 9.8% 전망 -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조정가능성은 국내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감소시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IT 부

분 초과 공급현상이 완화되어 수출 여건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수출 전망에 있어서, 전경련은 07년 호조를 보일 품목으로 자동차, 선박,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를 꼽았고, 휴대폰, 가정용전자, 석유(화학)제품 분야에서는 부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승용차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반면 상용차의 수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06년(10.9%, 327.3억 달러 예상) 대비 다소 증가세가 완화된 10.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은 수출과 내수경기의 둔화로 증가세가 축소되었지만 두 자리수의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 환 율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동아시아 환율 절상 기대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내 경상수지 적자 반전 및 자본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원화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미국달러화 강세 현상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달러화의 강세는 올해 중에 마무리 되고 미국-일본, 미국-EU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어 05.12월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화약세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07년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며 하반기에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동조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최근 원화 환율의 추이를 관찰할 때 글로벌 재조정을 위한 원화 절상 정도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어 원화 환율이 전반적으로 절상기조로부터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주요 국제 은행의 환율 전망〉

주요 국제 은행	엔/달러	달러/유로	원/달러
JP Morgan	110	1.34	990
Morgan Stanley	103	1.24	930
HSBC	108	1.32	895
Citi	106	1.28	925
Lehman Brothers	104	1.32	950
평균치	106	1.30	938

주요국의 07년 환율은 달러화 약세로 인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경제성장과 BOJ의 금리인상 예상으로 엔화강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증가와 미국 등 G7국가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 증대로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로/달러 환율도 유럽경제 성장에 따른 ECB의 금리인상기조 지속으로 유로화강세가 전망된다.

4 유가

지정학적 문제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증가 등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06년 8월 8일 사상 최고치인 배럴 당 72.16달러(두바이 유 기준)를 기록한 이후 국제원유 수급의 안정을 통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향안정세가 07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많은 변수로 인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해외주요기관의 유가 전망(기준유가 기준)〉 (달러/배럴)

주요 기관	기준 유종	2006년	2007년
CGES	Brent	64.60	58.70
CERA	Dubai	60.50	55.50
EIA	WTI	66.86	65.92
PIRA	WTI	66.45	64.50

CGES : 런던소재세계 에너지 센터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 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하향안정세 지속 전망은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 약화와 비OPEC의 공급확대, 그리고 국제 유동성 축소로 국제자본의 원자재 및 원유 시장에 대한 투기가 위축되거나 이미 투자된 자금이 환수될 가능성 등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반면 국제 유가 추세의 불안 요인을 보면, 07년 선진국 경기는 둔화되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BRICs 등 개발도상국들의 고성장으로 국제원유 수요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어 이러한 수요에 비해 국제 원유공급여건은 매우 불안한 실정이며, 국제유가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불안정한 상태여서 석유자원의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투기자본의 향방도 여전히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울러 석유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